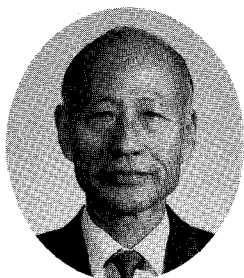


## 문명은 농업의 발달을 전제로 한다.

KCID 고문 이 기 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난지 몇 십만년 또는 몇 백만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긴 기간을 인류의 발달사적인 면에서 대체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소위 미개 사회, 문명전 사회 또는 자연 사회라 부르는 시기로서 이 단계는 인류사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한다. 토인비는 미개 사회가 인류사의 거의 98%를 차지한다고 하였고, 볼데잉 교수는 문명전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의 전환이 약 5천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미개 사회 또는 문명전 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기초는 수렵 내지 자연 생산물 채취로 혈연 공동체를 단위로 하며 사회적 분업은 발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미개 사회는 현재, 세계의 오지에서나 간혹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마저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은 에스키모족이나 뉴기니아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다. 현재 진짜 문명전 사회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세계 인구의 5% 미만일 것이며, 인류사의 제1단계는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인류는 6천~7천년전 또는 1만년전 부터 넓은 의미의 농업, 농경 및 목축을 경영하게 되었고, 농업이 어느 정도 발달한 단계에서는 사회적 분업과 도시가 생기고, 통치조직이 항구화 되면서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업 발달 이전의 수렵이나 채취의 시대에는 식량의 생산자 및 그 가족에게 필요 이상의 여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형편에서는 각자가 자기와 그 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식량 획득에 모두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회적 분업도, 도시도 생겨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문명이라는 상태에 진입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

농업의 발달은 또한 농업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농기구나, 저장용 기구, 운반용 기구 등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공업이 시작되었고 이 공업의 발달이 농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인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농업의 발달과 함께 공업이 점차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 발전되면서 공업 문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명이 17, 18세기 이후 서유럽 제국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산업 혁명이 그것이다.

공업이 농업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대체적으로 19세기 후반 부터이며, 이 시기에 서유럽 경제에서 공업적 요소가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고, 1850년경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이 지배했던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그 발달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업 문명의 상태로 진입하였으나, 그 전환이 어느 정도 완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는 서유럽의 제 국가들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극히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며, 세계의 다른 대다수의 국가는 아직도 농업을 주로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빈번히 회자(膾炙)되는 소위 정보화 산업 또는 정보화 시대라는 것도 넓은 의미의 공업화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공업 문명에 진입한 것은 2~3백년 이래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진 공업국에서는 각종 공해, 대기오염 등의 공업화에 따른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공업 문명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감케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6천~7천년 또는 그 이상에 걸쳐있던 농업 문명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며 지나친 공업화 보다는 자연환경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농업을 개발·발전시켜, 공해 없는 농업 문명을 건설했으면 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인 것이다.

농업의 발달이 문명의 발달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물의 채취 포획에 의존했던 농업전 시대에 비해 식량의 공급이 안정되고 또 일정 면적당 인 구 부양력이 높아지는 등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다.

둘째, 이동식 화전 경작의 예에서 보듯이 농업의 개시와 함께 인류의 정주가 즉시 일반화 되었다고 할

---

수는 없지만 농업의 발달과 함께 정주가 고착 되었으며, 그 후 정주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되어 인류의 문명은 정주적 문화 집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농업의 발달과 함께 직업의 분화가 생기고, 동시에 부의 축적과 사회의 계층 분화를 낳기에 이르러 사회계급이 형성 되었다.

넷째,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직업과 계층과의 분화가 일어난 이후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 국가이므로, 이 국가라고 하는 형태는 넓은 의미의 농업의 발달과 함께 정착된 것이다.

다섯째, 도시와 상업의 성립에 기여한 바, 인구의 증가, 직업 및 계층의 분화, 그리고 국가의 성립은 도시의 성립과는 서로 병행해서 발전 하였으며, 이렇게해서 도시는 조직 또는 통치 기능을 갖춘 거주지인 동시에 교역·상업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의 발생과 함께 인류가 그속에서 생활하는 문명의 기초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농업이 발생한 이후 오랫동안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공업이 시작되고, 오늘날 선진 공업국이 공업화를 이룩했지만 농업은 이들 공업국가들의 문명의 중요하고도 불가결한 요소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성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농업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물질을 공급한다.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은 대단히 높아졌으나 농업 이외의 방법으로 기본적 필수 물질을 얻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 농업은 생물을 육성하는 산업으로, 자연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무생물을 대상으로하는 가공업이나 물자의 교역 운반을 업으로하는 상업에는 이런 특성이 없다. 현재의 고도의 공업문명에 있어서의 자연 파괴 현상은 이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 농업은 자기 재생산적이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는 둔하고 변화는 느리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 
- 농업은 평화적이다. 자기 재생산적이고 순환적이며 자족적인 농업은 외연성이 부족하고, 흔히 고립적이고 폐쇄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회를 침략하는 성질이 없다. 농업 민족이나 농업 국가가 침략적이 되는 것은 농경지가 부족한 경우뿐이며, 상업·공업이 끝없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침략적이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농업 문명은 지역적 특질을 갖는다. 농업은 자연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하는 문명은 획일적이 아니며 지역적인 특질을 갖는다. 자연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일이 적은 공업이나 상업을 주로하는 문명의 획일성이나 동질성과는 구별이 된다. 획일성이나 동질성은 개성이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질이 이 결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이 인류 문명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류의 식량문제는 영원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농업의 일부분을 떠맡고 있는 우리는 농업의 낙후와 몰락에 대한 우려에 좌절하지 말고 먼 인류의 장래를 내다보며, 인류사의 제3단계에 적합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발달은 농업기술과 공업기술의 합리적 조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으로 농업의 여러 부문 중에서 농공분야는 새로운 미래의 농업을 창출하는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며 그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 농업, 첨단 농업, 무공해 농업등의 새로운 농업 기법 개발과 용수·농약·비료등의 사용을 줄이는 자원절약 농업을 연구, 개발, 확산, 보급 시키는데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서, 더욱 살기좋은 농촌을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